

영·한 번역과 비언어적 문맥의 처리*

김 정 우
(경남대)

1. 번역과 문맥

번역 작업은 문맥과의 씨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번역 과정이 작업 현장에서 원문의 문맥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고 하는 명제도 새삼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 원서를 마주하고 번역 작업에 접어들면, 이러한 일반론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역시, 조금이라도 번역의 경험을 가진 번역가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번역할 때 ‘문맥을 잘 파악해야 한다’거나 ‘주어진 문맥에 맞도록 해야 한다’거나 하는 명제도 지나치게 순진한 원론 내지 탁상공론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그만큼 ‘문맥’이라는 술어가 갖는 의미가 그야말로 ‘문맥’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역설에 대한 하나의 방증인 동시에, ‘문맥’이란 적어도 하나의 고정된 접근 방법만으로는 풀어나갈 수 없다는 뜻으로도 이해된다.¹⁾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문맥에 관한

* 이 글은 2001년 10월 26일과 27일 양일 간에 걸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렸던 한국번역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아서 논문 체계에 대한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던 용인대 한일동 교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 ‘문맥’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앞뒤 문장들과의 상관 관계를 떠올린다.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겠지만, 이는 ‘문맥’이 가진 여러 개념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실제 번역 작업에서는 이보다 더욱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맥을

일반론이 실제 번역 작업에서도 유효하려면 우선 문맥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를 실제 번역 작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가공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문맥의 개념을 언어학적으로 규정한 다음에, 문맥의 여러 층위들 가운데 하나인 ‘비언어적 문맥’을 번역 작업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실제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논의는 현장에서 번역에 종사하고 있는 번역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업 방안(manual)’의 성립 가능성을 모색해 보려는 실천이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문맥의 다층적 성격

2.1. 언어 문맥과 상황 문맥

문맥의 개념 파악을 위하여 <언어학 사전>에서 ‘문맥’과 관련된 항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²⁾ 관련 항목으로는 ‘문맥(=맥락)’과 ‘상황 문맥’, ‘문맥 의미’의 셋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 ‘문맥’과 ‘문맥 의미’는 대체로 유사한 개념이므로 우리의 관심은 ‘문맥(=문맥 의미)’과 ‘상황 문맥’ 두 가지에 집중된다.³⁾

바라보는 개념 정립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 2) 여기서 참고한 <언어학 사전>은 「언어학 사전」(이정민·배영남 지음, 1982)과 「영어학 사전」(조성식 편, 1990)의 두 가지이다. 표제어 ‘context’와 ‘context of situation’에 대해서 전자에서는 ‘맥락’과 ‘장면의 맥락’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고, 후자에서는 ‘문맥’과 ‘상황의 맥락’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다. ‘contextual meaning’에 대해서는 ‘맥락 의미’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법을 따라 차례로 ‘문맥’, ‘상황 문맥’, ‘문맥 의미’로 지칭하기로 한다.
- 3) 할리데이(Halliday)에 의하면 맥락 의미(=문맥 의미, contextual meaning)란 ‘언어 표현이 특정 맥락(=문맥, context) 속에서 사용될 때 그 맥락과 관련해서 갖게 되는 의미’를 가리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면 맥락 의미란 형식(form)과 상황(situation)을 관련지어 주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의미를 문장 의미와 발화 의미로 구분할 경우, 맥락 의미는 발화 의미에 해당한다. 이처럼 엄밀하게 구분은 짓는다

우선 ‘문맥’은 ‘특정 언어 단위의 전후에 위치하여 해당 언어 단위의 용법에 제약을 가하거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 주는 발화(utterance)의 한 부분’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사전적 뜻풀이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맥의 용법과 틀리지 않다. 다만 문맥의 기능 가운데 ‘소극적’(negative) 기능 이외에 ‘적극적’(positive) 기능도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보통 ‘문맥’이라고 하면 ‘용법의 제한 기능’만을 연상하게 되는데, 특정 언어 단위의 용법을 쓰지 못하도록 ‘막는’ 이러한 기능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문장 내지 발화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해당 언어 단위의 용법을 쓸 수 있게 ‘열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 (1)에서 밑줄 그은 단어는 더 이상의 문맥이 없다면 ‘계산서’인지 ‘부리’인지 ‘낫’인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⁴⁾

- (1) The bill is large.
- (2) ... but need not be paid.

그런데 이 문장의 다음에 (2)와 같은 문장이 이어진다면, 이 명사의 중의적 해석 가능성(ambiguity)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의미 영역이 ‘계산서’로 좁혀져서 비로소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이 해소된다. 화자의 의도적인 책략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중의성을 갖는 발화란 실제 언어 상황에서 사용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경우의 (2)와 같은 문맥은 (1)의 성립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문맥의 ‘소극적’ 기능(=제한)과 ‘적극적’ 기능(=허용)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문 (1)은 (2)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용법의 ‘제한’을 통해서 비로소 현실 언어 세계에서 사용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 문맥을 다음에 나오는 ‘상황 문맥’과 구분하여 ‘언어 문맥’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면 몰라도, 일반적인 용법상으로는 문맥의 기능이 결국 의미 기능이기 때문에 문맥과 문맥 의미는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이 예문은 조성식 편(1990:275)의 설명에서 취했다. 그리고 예문 (1)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주어의 중의적 해석 가능성을 열어주는 형용사 ‘large’에 대해서는 ‘a large sum of money’ 등과 같은 용법을 참고할 수 있다.

상황 문맥이란 ‘발화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상황, 즉 화자와 청자, 장면, 언어적 행동, 비언어적 행동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언어 표현의 의미는 그 언어 표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상황의 맥락(=문맥)’이라 하여 언어 구조 전후 관계를 일컫는 언어상의 맥락(=문맥)과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발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모두 남김없이 기술한다는 것은 방법론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현실적으로 객관적이고 논증 가능한 기술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한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상황 인자를 추출해낼 수 있는데, 그것은 크게 화자와 청자 및 발화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의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⁵⁾ 결국 상황적 문맥이란 ‘발화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상황’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상황 인자는 화자와 청자, 발화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이라고 객관화시킬 수 있다.⁶⁾ 이와 같은 상황적 문맥은 물론 언어 요소로 표현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서 존재한다.⁷⁾ 그래서 우리는 이 문맥에 대해서 편의상 ‘비언어적 문맥’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우리의 주제와 관련시켜 보면, 번역 작업에서 ‘주어진 문맥에 맞아야 한다’는 일반론은 좀더 구체적으로 ‘주어진 언어 문맥과 상황 문맥에 맞아야 한다’로 고쳐서 말할 수 있다. 전자를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문맥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문장 차원을 넘어선 넓은 의미의 문맥이라고 할 수 있다.

- 5) 언어 활동(=발화)의 효과는 발화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에 포함된다.
- 6) 3절에서 자료와 함께 다시 논의되지만, 우리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어법은 발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배경이라는 상황적 문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 7) 이 부분의 논의는 주로 퍼스(Firth)의 이론을 참고했다. 퍼스는 상황의 맥락을 의미 기술을 위한 기법으로 간주하고, 음성과 어휘, 문법과 같은 언어 계층 각각에 대해서 의미 기술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황의 맥락에 따라 통합시키고 있다. 여기서 상황의 맥락을 구성하는 인자로 다음의 세 가지(①언어 활동에 참가하는 화자와 청자의 언어적 활동과 비언어적 활동 ②언어 활동에 관련된 사물 ③언어 활동의 효과)를 들고 있다. 그런데 화자와 청자는 언어 활동의 참가자로 취급되는 동시에 자신들이 속하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또는 그 사회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인격을 가진 개체로 취급된다.

2.2. 문맥의 단계

앞서 우리는 ‘문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문맥을 언어 문맥과 상황 문맥으로 구분하여, 문맥의 개념 규정에서 일견 모호한 측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개념 규정은 실제 발화를 분석해 보면 더욱 많은 층위로 다시 세분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⁸⁾ 동요로 되어 있는 간단한 우리말 언어 표현을 예로 들어 언어적 문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양상을 알아보기로 하자.

- (3)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랗 거예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아란 하늘 보며 자라니까요.

위의 예문 (3)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첫째 문장에서 ‘파란 빛’이라는 언어 관계(連語, collocation)를 추출해낼 수 있다. 이 구절의 구성 요소인 용언의 관형형 ‘파란’과 체언 ‘빛’은 각자 상대방에게 유효한 문맥을 허용해주고 있다. 우리말에서 ‘빛’은 ‘광선’과 ‘색채’의 의미를 지닌 일종의 다의어(polysemy)인데, ‘파란’과 연결됨으로써 후자의 의미를 갖게 된다. ‘파란’도 일단 ‘빛’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색채의 하나라는 의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⁹⁾

그렇지만 아직까지 ‘파란’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상태가 못 된다. 우리말의 ‘파랗다’는 ‘초록색’과 ‘청색’을 함께 아우르는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파란’의 구체적인 의미 해석은 다음 둘째 문장 전반부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산과 들과 나무의 파란 잎’이라고 하면 이 ‘파란’은 ‘초록색’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둘째 문장의 후반부를 보면 ‘파란 하늘’이란 구절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경우의 ‘파란’은 다시 ‘청색’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행한 의미

8) 사실은 언어 자체가 ‘분절’(articulation) 현상을 주요한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되겠지만, 언어 단위들의 결합으로 단위가 커지면서 순차적으로 새로운 문맥 부여가 가능한 과정은 통사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직접구성요소 분석’(Immediate Constituent Analysis)의 역순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9) (cf.) 파랗게 질렸다.

해석과 맞지 않는다. 결국 이상의 문맥을 모두 종합하면 ‘파란’은 작사자가 의도적으로 ‘초록색’과 ‘청색’을 모두 가리킬 수 있도록 배치한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¹⁰⁾

우리는 여기서 ‘파란’의 최종적인 의미 해석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인접 문맥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언어 단위의 규모가 커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를 형식화시켜서 말한다면, 언어 문맥이란 단어와 단어의 연결로부터 시작하여, 그보다 큰 단위들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의미 해석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4) 언어(言語) - 구 - 절 - 문장 - 단락 - 글

실제 번역 작업에서 이러한 문맥 구조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란 힘든 일이지만, 최소한 문장과 단락과 글 전체의 3단계 확인 과정은 거쳐야 원작자의 의도에 근접하는 번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논의했듯이, 우리는 이와 같은 언어 문맥 외에도 상황 문맥의 존재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위 (4)의 구조에다 상황 문맥까지 덧붙여야 최선의 번역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번역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맥의 단계는 다음과 같은 (5)의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5) 언어 - 구 - 절 - 문장 - 단락 - 글 - 상황

위 (5)의 구조는 각 항목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구’에 포함되고 ‘구’는 다시 ‘절’에 포함되는 식으로 왼쪽 항목이 오른쪽 항목에 완전하게 포함되는 논리 관계를 이루고 있다.¹¹⁾

10) 이러한 용법은 물론 ‘청색’과 ‘녹색’이 분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말의 고유어 형용사 체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11) 이와 같은 문맥 구조의 도식화는 사실상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업을 전제로 한다. 번역자는 원문의 문맥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우리말의 문맥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문맥의 확인 작업이 여기 제시된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

우리는 다음 절에서 위 (5)의 마지막 단계, 즉 상황 문맥(=비언어적 문맥)을 실제 번역 작업에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¹²⁾

3. 번역 과정과 비언어적 문맥

이 절은 본고의 중심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낯익은 우화를 텍스트로 삼아서 이를 우리말로 옮길 때 만나게 되는 상황 문맥 내지 비언어적 문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일단 비언어적 문맥과 관련된 용례를 수집한 다음에, 이들을 상황 문맥의 구성 인자(화자, 청자, 발화의 시간과 공간적 배경)에 따라 유형화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며, 중간 단계가 생략될 수도 있다. 예컨대 단락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문장 단계에서 바로 글 전체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 12) 여기서 다루게 되는 원문은 세 편의 우화로 첫째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이솝 우화이고, 둘째는 같은 내용을 프랑스인 라 폰텐이 약간 달리 각색한 우화이며, 마지막으로 셋째는 20세기 중반에 각색된 이솝 우화이다.

원판 이솝 우화의 판본으로는 *Aesop's Fables*(Penguin Classics, 1954)을 사용했다.

한편, 라 폰텐 우화의 작자인 라 폰텐(Jean De La Fontain, 1621-1691)은 프랑스의 절대 왕정 시기인 17세기를 살았던 문필가로 이솝 우화와 인도 우화 등을 자료로 삼아서 많은 우화를 창작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우화이더라도 17세기 프랑스라는 시간적인 추이와 공간적인 변용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도 부분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언어상으로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라도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 다르므로 다른 의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형식상으로도 전편이 운문(=시가, verse)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채롭다고 하겠다. 판본으로는 *Jean De La Fontain: Selected Fables*(Penguin Classics, 1982)을 사용했다.

현대판 이솝 우화는 짐러(Robert Zimler)라는 미국인의 작품인데, 모두 원판의 이야기를 패러디한 내용 전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판본으로는 *Aesop Up-to-date*(Clarkson N. Potter, 1964)를 사용했다. 작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다. (순서대로 예문 출전 표시 말미에 각각 a, b, c로 제시된다.)

3.1. 화자

3.1.1. 원문의 장르

원문이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서간문과 일기 등의 실용문이나에 따라 번역의 결과가 달라지리라는 것은 예상하기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작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따라서 어떤 장르를 선택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 역시 그와 같은 어조의 문제로 환원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원문의 장르를 ‘화자’라는 상황 문맥의 하나로 처리하기로 했다.

원문의 장르는 번역가에게 최초의 판단을 요구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최초의 판단이란, 원문의 장르적 특성을 우리말 번역에서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번역가의 결정에 따라서 번역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아래의 예문 (6)과 (7)을 통해서 우화라고 하는 원문의 장르가 실제 번역 작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6) *A Lesson for Fools (a)*

A crow sat in a tree holding in his beak^a a piece of meat that he had stolen. A fox which saw him determined to get the meat. It stood under the tree and began to tell the crow what a beautiful big bird he was. (중략) ...

(7) *The Crow and the fox (c)*

An old crow, so ugly she had never been able to find a mate, was sitting^b in a tree eating a piece of stolen cheese. A passing fox spied the crow and desired the cheese. So the fox called up to the crow, “You are so homely that it seems altogether likely to me you have some compensating virtue. Could it be your voice? If you’d care to let me hear a few notes, I am something of an expert and will give you my unbiased opinion.” (중략) ...

이습 우화에서는 사람이 아닌 동물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여 생동감을 높

이는 이른바 의인화의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드물지만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도 아주 없지는 않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이 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우리말로 옮겨주어야 한다. 사실 이른은 이처럼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번역 작업에 접어들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㉔를 한번 우리말로 옮겨 본다고 하자. 사전을 찾아보면, 'beak'은 '새의 부리'나 '동물의 주둥이' 정도로 나와 있다. 원문의 등장 인물(=새) 까마귀를 생각하면 당연히 '부리'로 옮겨야 하겠지만, 의인화라는 표현 기법을 고려하여 사람의 분위기를 내고자 한다면 오히려 '입'으로 옮겨야 한다. 그런데 실상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양쪽이 다 썩 흡족하지만은 않다. 전자인 '부리'를 취하자니 의인화의 표현 기법을 너무 무시해 버린 느낌이 들고, 후자인 '입'을 취하자니 이번에는 또 원문의 분위기를 너무 심하게 훼손했다는 느낌이 든다. 말 그대로 진퇴양안인 셈인데, 제3의 대안으로 '주둥이'를 제안하고 싶다. 이 '주둥이'라는 단어는 '동물의 입(부리)'도 되면서 동시에 '사람의 입을 조금 낮추어 부르는 말'도 되기 때문이다.

이 단어는 동물과 사람 양쪽에 모두 쓸 수 있는 재미있는 어휘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 한 편으로 (새의 부리도 넓게 보면 동물의 주둥이에 포함되므로) 이 주인공이 동물(=새)이라는 사실도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 완전한 사람의 인격을 갖추지 못한 낮춤말을 씀으로써 이 주인공이 진짜 사람이 아닌 의인화된 사람이라는 상황도 어느 정도 살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문 (7)에 나오는 ㉔도 마찬가지로이다. 의인화의 기법은 물론, 그 주체가 새라는 점도 모두 번역에 반영해야 한다.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광경이므로 그냥 '앉다'로 하면 조금 불만스럽다. 새가 '햇대에 앉은'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몸을 완전히 바닥에 댄 상태가 아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약간 엉거주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작위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위험을 무릅쓰고 일단 '걸터앉다'라는 표현을 제안해 본다.¹³⁾ 앞선 명사 '부리'처럼 이 동사도 역시 사

13) 이와 같은 어휘 구사는 다음의 시에서도 만날 수 있다. 여기서 '눅다'는 '식물 줄기가 뺨어나가는 동작'도 가리킬 수 있으며, '울다'도 '문풍지가 울다'에서처럼 무생물이 소리를 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의 두 문장은 비문이 아니라, 오히려 각각 '시각 이미지'와 '청각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줄고(1996) 참고.

람과 동물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경계선의 단어라고 할 수 있다.

3.1.2. 시점

화자의 시점도 물론 번역 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비언어적 문맥에 속한다. 같은 사람을 두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애국자’가 될 수도 있고,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8) *The City Mouse and the Country Mouse (c)*

A little country mouse, who had been the puniest of his litter and who had compensated for his infantile inadequacy by developing an aggressive personality, was visited one day by his cousin, a city mouse. ... (중략) ...

“Then there’s the exterminator,” said the city mouse. “He’s always putting traps and strychnine nuggets in the most out-of-the-way places[㉠]. You have to keep your wits about you every moment, I warn you—there’s no absent-minded nibbling at some stray piece of Italian salami or an unexpected bit of caviar, as you value your life. Oh, it’s a dreadful strain on the nerves!” ... (중략)

㉠에 포함된 ‘out-of-the-way’는 ‘...을 피해서’, ‘길에서 벗어난’, ‘외진’, ‘부적당한’ 등의 뜻인데, 쥐덫을 설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는 호젓한 곳’일 테지만 덫에 걸리는 쥐의 입장에서 보면 ‘뻥질나게 잘 다니는 길’이 된다. 따라서 주어를 사람으로 잡으면 ‘인적이 드문 호젓한 곳에 덫을 놓는다’ 정도가 되고, 쥐로 잡으면 ‘우리들이 뻥질나게 드나드는 곳에 덫을 놓는다’ 정도가 될 것이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중략) [김수영의 ‘풀’에서]

3.1.3. 작중 화자

작중 화자의 성별이나 연령 등의 특성도 번역 작업에 반영되어야 한다.¹⁴⁾

(9) *Always In The Wrong* (a)

A wolf, seeing a lamb drinking from a river, wanted to find a specious pretext for devouring him. He stood higher up the stream and accused the lamb of muddying the water so that he could not drink. The lamb said that he drank only with the tip of his tongue, and that in any case^{a)} he was standing lower down the river, and could not possibly disturb the water higher up. ... (중략) ...

(10) *The Lion, The Fox, And The Stag* (c)

Having grown too feeble to hunt, an aged lion lay weak and starving in his den when a fox chanced to pass by. “Friend fox,” called out the desperate lion, “if you are as clever as you are reputed to be, perhaps you can lure some game within my reach. Instead of trapping stray mice and pilfering birds’ nests, you shall share equally in the spoils and eat your fill.” ... (중략) ...

예문 (9)의 a)는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정도의 뜻인데, 이 말을 꺼낸 화자인 ‘어린 양’이 사용하기에 너무 논리적인 말처럼 보인다. 여기서 화자가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어린 양’이므로 그 나이에 어울리는 말씨로 옮겨주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은 ‘그리고요’ 정도로 생각된다.

예문 (10)에서는 사자와 여우가 원래부터 ‘동료’로 알고 지내던 원판 우화와 달리, 사자와 ‘지나가다 눈에 뜨인’ 여우의 관계가 그다지 돈독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친소 관계는 둘 사이의 대화에서 사용되는 말씨의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사자가 ‘백수의 왕’이고 몸집도 큰 만큼 사자가 여우에게 ‘하계체’를 사용하는 대화 장면을 상정해 보았다.

14) 일반적으로 작가는 이 작중 화자와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 이야기에 직접 끼어들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작가가 바로 작중 화자가 된다.

3.1.4. 작자의 의도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고도의 함축성과 풍자성을 생명으로 하는 이러한 우화를 다루는 번역가는 한 편의 글 전체를 통해서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를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해주어야 한다.

(11) *The Dog In The Manger (c)*

A young nobleman of the Sultan's court accidentally obtained a glimpse of the youngest and most beautiful of his Sultan's wives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her. By much planning he contrived an audience with the wife, but was discovered by the eunuch who was custodian of the harem. ... (중략) ...

Moral: *It's pretty cozy in a manger.*[㉠]

(12) *The Dog Who Dropped The Substance For The Shadow (b)*

Everyone under the sun

Deceives himself: so many madmen run

After shadows that one's half the time unable

To reckon their number up.

We must refer them to the fable

In which Aesop speaks of the foolish pup. ... (중략) ...

예문 (11)의 교훈 ㉠은 문자 그대로 옮기면 ‘구유 속은 아주 아늑하다.’ 정도가 되는데, 얼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번역이 안 되면 뒤집어서 읽어 보라’는 격언에 따라 반어적(反語的)으로 읽어서 ‘하기야, 구유 속이 아늑하긴 하겠지만.....’ 정도로 처리했다.

예문 (12)는 앞 부분에 작자가 개입하여 미리 전개될 내용에 대한 가치 판단을 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말 번역에서 이후에 나오는 나머지 부분과 어조를 다르게 배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3.2. 청자

3.2.1. 독자층의 상정

사실, 독자층의 상정 문제도 장르 못지 않게 번역가가 번역의 태도를 결정하는 초기 판단에서 중요한 상황 인자로 작용한다. 전문 서적인 경우, 설명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고, 어휘 사용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3) *The Cricket and the Ant* (c)

A cricket, having neglected to lay up a store of food for itself during the summer and autumn, was hungry when the winter came. So the cricket went to an ant nest to beg food from the ants' supply. ... (중략) ...

Abashed by this irrefutable argument, the cricket departed. Soon after, when he died of cold and hunger, the ants found his body, dragged it to their nest and ate it with satisfaction.

Moral: When winter comes, spring is far behindⓐ.

(14) *Eating The Bread Of Idleness*ⓑ (a)

A man trained one of his two dogs to hunt and kept the other as a house dog. The hunting dog complained bitterly because, whenever he caught any game in the chase, the other was given a share of it. "It is not fair," he said, "that I should go out and have such a hard time of it, while you do nothing and live well on the fruits of my labour." ... (중략) ...

예문 (13)의 ⓐ는 영국의 시인 셸리(P. B. Shelley)의 작품에 나오는 구절을 원용한 일종의 패러디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의 구절 'If winter come, can spring be far behind?'(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를 아는 독자와 모르는 독자가 이 대목을 읽고 느끼는 감흥의 정도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독자의 수준을 상정하는 데 따라서, '겨울이 와도 봄까지는 한참이다.' 또는 '겨울이 왔으니 봄은 멀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정도의 번역이 모두 가능할 것이다.

예문 (14)의 ⓑ는 영한 사전을 보면 관용구로 등재되어 있다. '무위도식'(無爲徒

餉)이나 ‘놀고 먹기’가 이 관용구의 의미이다. 요즘의 독자들은 한글 세대이니 한자 성어보다 한글로 풀어쓴 표현이 나올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번역자의 판단에 따르는 문제이다. 사실, 표기 문자에서 한글을 전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쓸 것인가 하는 문제도, 번역자가 어떤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그 해답이 달라진다.

3.2.2. 전문 지식

전문 서적일 경우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옮겨주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 서적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전문 용어나 전문적인 개념은 번역자의 적절한 손질을 거쳐야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독자층의 상정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그 범위가 지엽적인 것이라서 별도로 항목을 나누어 다루기로 한다.

(15) *The Boy Who Cried, “Wolf!”* (c)

As a result of a childhood trauma, a youth was a compulsive liar. His habitual lying made him unreliable at whatever task he was entrusted, so he was finally given the duty of caring for a flock of sheep. ... (중략) ...

But all the other flocks suffered heavily, and one courageous shepherd was bitten badly by the wolves as he defended his charges. He contracted hydrophobia[㉠] in consequence and died the most painful and horrible death imaginable.

(16) *Honesty Is the Best Policy* (a)

A man who was cutting wood on a riverside lost his axe in the water. There was no help for it; so he sat down on the bank and began to cry. Hermes[㉡] appeared and inquired what was the matter. Feeling sorry for the man, he dived into the river, brought up a gold axe, and asked him if that was the one he had lost. ... (중략)

예문 (15)의 ㉠은 ‘광견병’인데, 개가 아닌 늑대한테 물려서 광견병에 걸렸다

고 하면 언뜻 이상하게 들리지만, 개의 조상이 늑대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납득이 안 가는 바도 아니다. 독자를 위해 조금 더 배려한다면, 이런 생물학적 사실을 다음과 같이 내용 가운데 슬쩍 풀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성실한 양치기 하나는 양떼를 지키다가 그만 심하게 물린 끝에 광견병에 걸려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죽음을 맞이 않으면 안 되었다. 개의 조상이 늑대라던가?’

예문 (16)의 ㉞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神)의 하나로, ‘학예와 상업, 변론을 맡은 전령(傳令)신이라고 한다. 그리스 신화에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우리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헤르메스라는 신이 이 이야기에 등장했는지가 쉽게 와 닿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도 원문에는 없더라도 ‘인간 세계의 이런 일을 주관하는 전령신 헤르메스’ 정도의 내용을 넣어주면 좋을 것이다.

여기서 밑줄 그은 두 부분은 일종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석이 본문 이야기의 흐름에 지장을 준다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따라서 이러한 주석을 본문 가운데 풀어놓을 때는 가능하면 독자들이 주석인 줄 모르고 읽도록 배려해야 한다.

3.3. 시간·공간적 배경

원문에 담긴 시간과 공간 정보 역시 번역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중요한 상황(=비언어적) 문맥에 속한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인자들이 관여하고 있지만, 상식화한 내용이므로 한두 가지만 제시하기로 한다.

3.3.1. 문화적 배경

그 하나의 인자로 우선 문화적 배경을 들 수 있다.

(17) *The Crow and the Fox* (b)

Mr Crow, perched in a tree, held in his beak

A piece of cheese.

Mr Fox, attracted by the smell,

Began to speak

In terms roughly like these:

Hullo!

I mean, good morning, honourable Crow,

You look uncommonly well,

Indeed you look a veritable Romeo.

Honestly, if it were not for one thing

You would be the phoenix^㉔ of our woodland birds;

Your feathers are gorgeous - but how well can you sing?’

(중략) ...

(18) *The Frogs Who Asked For a King* (b)

The frog nation^㉕, becoming bored

With democracy, raised such a fractious cry

That Jupiter appointed them an overlord^㉖. (중략) ...

예문 (17)의 ㉔는 ‘불사조’보다 문맥상 ‘임금’이나 ‘봉황새’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불사조’라는 단어는 특히 우리 문화권에서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같은 새를 고려한다면, ‘임금’을 상징할 수 있는 후자인 ‘봉황새’가 나아 보인다.

예문 (18)에서도 시대 배경이 절대 왕정 시절이던 17세기인 점을 고려하면 ㉕는 ‘백성’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㉖ 역시 ‘대왕’ 정도가 적당하다. 우리에게도 왕조 시대의 경험은 풍부하기 때문이다.¹⁵⁾

15) 이러한 방법은 원문의 방언 요소를 번역문에서 직접적으로 살려줄 수 없을 때 이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태도와 유사하다. 즉, 어떤 언어의 방언에 특이한 강세가 존재한다고 할 때, 강세가 의미 분화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말에서 이런 방언 특징을 직접적으로 살려주기란 힘든 일이다. 그런데 이때 이 방언이 만일 그 언어의 수도권에서 사용되는 말씨라고 한다면, 서울말에 특징적인 발음 한두 가지를 번역 작업에 도입함으로써 원문의 방언 효과를 간접적으로나마 반영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3.3.2. 경어법

우리말에는 경어법이 문법적 과정에 참여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착언어가 사용되는 공간적 배경이 비언어적 문맥을 결정하는 인자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19) *Disarmed* (a)

A lion fell in love with a farmer's daughter and wooed her. The farmer could not bear to give his girl in marriage to a wild beast; yet he dared not refuse. So he evaded the difficulty by telling the importunate suitor that, while he quite approved of him^a as a husband for his daughter, he could not give her to him unless he would pull out his teeth and cut off his claws, because the girl^b was afraid of them. ... (중략) ...

예문 (19)의 a와 b는 농부가 한 말 속에 나오는 말이므로, 만일 직접화법으로 문장을 쓰려면 화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당한 지칭어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의인화된 인물이긴 하지만 사자는 현재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사윗감을 대하듯이 대해 주어야 하므로 지칭어의 선택에 이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장래) 장인과 사위 사이의 대화에 쓰일 수 있는 화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어울리는 경어법 체계는 ‘자네’와 호응하는 ‘하계체’이다.

4. 요약 및 결론

우리는 흔히 번역 작업에서 ‘번역의 결과가 주어진 문맥에 맞아야 한다’는 일반론을 접하게 되는데, 문맥을 좀더 세분하면 언어 문맥과 상황 문맥으로 나누면 앞서 전제로 한 일반론도 ‘번역의 결과가 주어진 언어 문맥과 상황 문맥에 맞아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명제로 환치시킬 수 있다. 여기서 언어 문맥은 언어 구조로 드러난 문맥을 말하며 상황 문맥(=비언어적 문맥)은 발화 참여자와 발화의 시간·공간적 배경, 즉 발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말한다. 번역가는 원문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다층적인 언어 문맥을 파악해가는 동시에 이 텍스트

를 둘러싼 상황 문맥까지 염두에 두어야 최선의 번역을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세 편의 <이습 우화>를 텍스트로 하여 번역 과정에서 비언어적 문맥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를 실제 번역 작업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이론이 실제 번역 작업에 종사하는 번역가들에게 일종의 작업 편람(manual)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고 글을 맺기로 한다.

인용문헌

- 김정우. 『영어를 우리말처럼 우리말을 영어처럼』(이론편). 서울: 창문사, 1996a.
 _____. “내용과 형식의 상생적 합일 -김수영의 ‘풀’을 대상으로.” 『문학과 언어의 만남』. 신구문화사, 1996b.
 _____. 편. 『영어 번역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90가지 핵심 포인트』. 서울: 창문사, 1997.
 _____. 『이습우화와 함께 떠나는 번역 여행(1, 2, 3)』. 서울: 창해, 2000.
 원종익. “절대 왕정(La Monarchie absolue)과 라 폰텐느(La Fontaine).” 『프랑스학 연구』 제16권. 프랑스학회, 1998.
 이정민, 배양서. 『언어학 사전』. 서울: 한신문화사, 1982.
 조성식 편. 『영어학 사전』. 서울: 신아사, 1990.

[Abstract]

The Translation of English into Korean and the Practical Way to Introduce Non-linguistic Context Factors into the Target Language

Kim Jeong-Woo
(Kyeng Nam University)

The concept of contex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ranslating the original text into that of another language. The context has a multi-leveled nature, and it is mainly divided into two large categories, linguistic context and situational or non-linguistic context. The latter has three key factors such as the speaker, the listener, and the background of time and space in which an utterance is made.

The present author tries to review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situational or non-linguistic context in translating an English text into Korean with concrete materials excerpted from three versions of the Aesop fables; the original version, La Fontain version, and the modern version. As a result, he has extracted eight factors, which are in turn grouped in three categories. The concrete factors of each category are as follows:

The first category, the speaker, has four factors such as the genre of the original text, the point of view, the story teller, and the true intention of the writer.

The second category, the listener, has two factors such as the reader group and the technical terms or knowledge.

The third and last category, the spatial-temporal background of an utterance, has two factors such as the cultural background and the honorific system.

The translator should fully take the above-mentioned factors into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to achieve a satisfactory result. Further, he could use various techniques to cope with some troubles which these factors of the situational or non-linguistic context may cause. For example, he may insert the easy explanation of a technical or highly skilled phrase into the translated text to help the readers'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though its corresponding part doesn't exist in the original text.